

19. Papillary carcinoma of thyroid revealing numerous multinucleated giant cells in the aspiration biopsy cytology

김경미, 이교영, 강창석, 심상인, 김선무

가톨릭대학 의학부 임상병리학교실

갑상선의 유두상 암종은 갑상선의 악성 종양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세침흡인검사가 잘 이루어졌을 경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질환이다. 세포학적으로는 약간 커진 세포들로 구성된 유두상 세포집단과, 개개 세포가 갖고 있는 간 유리양의 핵(ground glass nuclei), 핵내 가성 봉입(intranuclear cytoplasmic pseudoinclusion) 그리고 핵내 groove 등의 특징적인 소견이 있어 진단이 용이하다. 드물게 psammoma body가 나올 수 있으며, 적은 수의 다핵성 거대세포, 포말 조직구 그리고 림프구들이 보일 수 있으며 암종이 낭성 변화를 했을 경우 색소를 탐식한 대식구가 관찰되기도 한다. 갑상선의 세침흡인검사에서 다수의 다핵성 거대세포가 출현하는 경우 유두상 암종과 양성 질환인 아급성 갑상선염, Hashimoto's thyroiditis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2개월 전부터 만저지기 시작한 우측 경부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55세 여자 환자에서 실시한 갑상선의 세침흡인검사에서, 많은 수의 다핵성 거대세포와 대식구가 비교적 암전하게 생긴 갑상선 상피세포들의 집락과 함께 발견되어 양성 질환과의 감별이 어려웠던 갑상선 유두상 암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20. 갑상선의 악성 림프종의 세포학적 소견 Cytologic Features of Malignant Lymphoma in Thyroid

김남훈, 고영혜, 이종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갑상선의 악성림프종은 전 갑상선 암종은 지역에서는 10%의 높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여자에서 2.6~8.4 배로 남자보다 많으며 호발연령군은 50~80세(평균 63세)이다. 병력상 대부분의 경우 Hashimoto 갑상선염을 비롯한 갑상선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한다. 세포아형은 면역아구성 육종을 포함하는 대세포 림프종(조직구성 림프종)이 70~80%로 가장 많다. 세포학적으로 소세포암종과 구별하기가 때로 어려우나 림프구성 분화를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다. 저자들은 최근 경험한 2예의 원발성 갑상선 림프종의 세포학적 소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은 66세 여자로 갑상선 세침흡인 도말상 전형적인 피사성배경에 비정형성을 보이는 림프구들이 접착력이 없이 개개의 세포로 분산되어 도말되었으며 림프선체(lymphoglandular body)가 관찰되었다. 종양세포는 크고 작은 세포가 섞여있었으며 염색질은 과립상으로 뭉쳐 있었고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았다. 세침흡인도말상 혼합세포형 악성림프종으로 진단하였고 이어 전신적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